

부부관 변화 탓인지 '이혼' 관련서 쏟아진다

‘혼인의 실패’ 아닌 ‘문제해결’ 차원에서 접근... 여성들 입장에 중점 뒤

“우린 10년 동안을 함께 살아왔어. 처음 5년은 좋았지. 그 다음 2년은 그럭저럭 지낼 만했어. 하지만 마지막 3년은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난다구. 이제 당신과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는 것조차 싫어.”

「이렇게 곱은 날에」(필리스 길리스, 실천문학)의 한 대목은 “환상속의 그대”가 “이기적이다 못해 야만적이기까지 한 그대”로 변화되는 세월을 보여준다. 이 책은 저자 자신의 이혼경험을 기술한 고백수기인 동시에 미국의 불공평한 이혼법을 폭로한 고발 수기이다. 저자는, 여성들이 결혼이라는 관계에서 헌신과 희생을 강요받으면서도 막상 그 결혼이 해소되는 불행을 맞을 경우, 감당키 어려운 경제적 압박은 물론 사회의 냉대와 법적인 불이익까지 한몸에 받아야 하는 성적 불평등을 고발하고 있다.

여성학 부상과 함께 관련서적 줄이어

이혼을 주제로 한 책들은 ‘만남’에서 ‘헤어짐’, 그리고 그 이후까지의 과정에서 파생된 여러 문제들을 점검하고 있다. 그러한 책으로는 「이혼, 또 하나의 선택」(사잇소리, 여성사) 「왜 이혼 못하는가」(장정순, 현민시스템) 「남편은 적인가 동지인가」(곽배희, 광화문) 「이혼과 가족문제」(한국가족연구회, 하우) 「이혼과 자녀」(최진섭, 삼지원) 「이렇게 곱은 날에」(필리스 길리스, 실천문학) 「이혼이야기」(A. 알바레스, 명경) 등이 있으며, 「결혼이라는 이데올로기」(현실문화연구) 「한국가족의 부부관계」(한국여성사회연구회, 사회문화연구소) 「결혼과 가족관계」(이정우 외, 숙

대출판부) 등에서도 한 부분을 할애해 이혼문제를 다각도로 조명하고 있다.

이혼에 관해 이처럼 많은 책이 출간된 데는 여성학이 본격학문으로 부상되면서 이혼을 개인적인 불행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으로 보는 학계의 분위기와 많은 관계를 맺고 있다. 서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혼을 혼인의 실패로서, 죄의식이나 수치심으로, 혹은 일탈행위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부부생활에서 발생한 ‘문제의 해결방편’으로 이해하는 인식의 전환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통계청의 이혼통계에 의하면, 60년대 평균 0.41%에 지나지 않던 이혼율이 70년대에는 0.76%, 80년대에는 1.56%로 늘어났고, 80년대는 1.56%에 이르러 60년대에 비해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율의 증가는 90년대에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는데, 92년 한 해에만도 32만6415쌍이 결혼을 한 반면 이혼을 한 쌍은 4만1511쌍이었다.

이처럼 이혼 건수가 많은 이유에 대해, 위의 책들에서는 산업사회의 발달로 인한 가족의 약화된 유대관계를 주목하고 있다. 즉 1960년대 이후 가속화된 도시화 산업화와 함께 산업사회의 익명성과 빈번한 사회적 지리적 이동에 의한 사회통제의 약화 등으로 가족의 불안정성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것.

「결혼이라는 이데올로기」에서 김혜련씨도 「결혼과 이혼의 변증법」이라는 글을 통해 사회 문제적 차원에서 이혼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필자는 “이혼은 문제·갈등의 극단적 표출이며, 결혼의 구조와 제도의 모순을 극명하



인생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이혼을 말하고 있는 책들.

게 보여주는 하나의 창구”라면서 “이혼의 주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남성이지만 그 뒤에는 부부 사이의 거리가 있고 단절되고 왜곡된 사회경험이 있다”고 적고 있다. 즉 남성의 무지와 분열, 아내의 수동성과 삶의 왜곡에서 이혼이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패 아닌 또 하나의 선택이라고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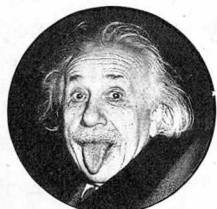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크게 변하고 있는데, ‘이혼은 부끄러운 것’이라는 통념이 깨지고 ‘이혼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형편이다. 위의 책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성들이 당당하게 이혼을 말하고 있고, 이혼을 ‘인생의 끝’으로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인생의 전환’으로 보고 있다.

「이혼 또는 하나의 선택」 「왜 이혼 못하는가」에서는 또한 이혼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결

혼제도의 문제점과 이혼을 야기시킨 사회제도 등을 살펴보고 있다. 두 책은 저자들이 인터뷰를 통해 이혼의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여성의 시각에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데,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을 비롯해서 이혼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과 심리적 아픔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가부장사회의 결혼은 그 체제를 연장시키는 선에서 결혼이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면서, 여성들이 미래를 설계하는 데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결혼에 대한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는다.

「남편은 적인가 동지인가」의 저자 곽배희씨는 현재 가정법률상담소 상임상담위원. 73년부터 상담활동을 했던 이력에 걸맞게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이혼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이 책에서는 이혼하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

아인슈타인의 꿈



▷ 뉴욕 타임즈 북 리뷰 베스트셀러

상대성 이론 탐구과정 소설화!!

<p>지금까지 어떤 소설가도, 어떤 물리학자나 철학자도 시간의 본질과 그 열린 가능성에 대해 이처럼 참다운 비전을 제시한 적이 없다.</p>	<p>지금 이 순간- 시간은 흐르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시간이 갑자기 멈춰진다면? 즐거운 시간은 왜 빨리 흐르고 지겨운 시간은 왜 느리게 흐르는 것일까? 사람들은 왜 시간이 '흐른다'고 느끼는 걸까? 시간은 단지 '기억'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p>
--	---

•엘런 라이트먼/권국성 옮김/값 4,800원

서울북맵

책! 정보전쟁시대의 휴대품

이 책은 말한다. 문제는 정보이고 편리함이란 것을. 책의 정보, 각종 서점·도서관에 관한 한 앞서가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이 책은 고안되고 편집되었다. 집어라! 그리고 그때 그때 빨리 읽고 책의 정보전쟁에서 승리하라.



서점·도서관 완벽가이드

- 서점가 지도
- 대형서점 가이드
- 전문서점 가이드
- 대형도서관 가이드
- 전문도서관 가이드

• 값 4,500원 조경환 편저



전화 720-5990, 5991
팩시밀리 739-2129

▲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안방에서 필요한 책 받아본다

동아출판사서 컴퓨터통신 도서판매 본격개시

는데, 이혼이 남성의 잘못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하에 호주제의 허와 실, 이혼 후 만나는 법적 문제, 동성동본·간통죄 등에 관한 논쟁과 저자의 견해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혼을 한다고 해서 그 즉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복했던 시절이 있던 만큼 이혼에 따른 후유증도 이혼자들에게 찾아온다. 여러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도 이혼녀를 보는 사회적 눈초리가 곱지 않으며, 절망감, 외로움, 경제적인 스트레스, 자녀양육 등의 문제가 당사자를 괴롭힌다.

한편 남성들도 여성과 다름없이 그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한다. 남자들에게 흔히 이혼이 사회적인 실패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외에도 자녀문제, 위자료 지급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주변의 시선, 자멸감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이혼 후 대책 소개한 책도 적잖아

후유증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방안으로 「이혼 또 하나의 선택」에서는 심리적으로 완결된 이혼을 하고, 취업교육 알선기관 등을 찾아가 경제적인 독립을 유지하고, 자녀에게는 이혼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 부부의 이혼은 그 자녀에게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90년에 이혼한 부부 중 자녀가 두 명인 가정이 전체의 56.5%에 이르고 있다는 통계수치만 보더라도 그 자녀는 이혼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혼과 가족문제」 「이

혼과 자녀」는 이혼에 따른 간접피해자인 자녀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 있어 눈길을 끈다.

그중 「이혼과 가족문제」는, 한국가족학연구회가 서울시의 후원을 받아 수행한, 이혼부부와 그 자녀에 관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보완 발전시킨 이론서. 이 책에 의하면, 이혼자의 자녀들은 일시적으로 자아개념과 학업성취도가 낮고, 공격성 의존성 회피 걱정 등의 행동특성을 나타낸다. 또한 일반적으로 이혼한 가족의 여자들이 일반 가족의 여자들보다 이탈행위가 많이 보인다.

이혼대책에 대해서는 이혼예방, 이혼과정, 이혼 후의 세 시기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는 부부관계의 질적 향상을 교육프로그램, 가족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화해나 만족스러운 이혼을 위한 조정·중재·법률적 재판, 자녀에 대한 배려가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혼 후에는 여러 측면의 경제적 지원과 자녀양육 및 교육보조 그리고 심리적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이혼 관련서들은, 남성도 이혼 후 많은 문제를 경험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여성의 입장에서만 고려하고 있다. 설문조사를 토대로 씌어진 책에서는 응답자가 여성이고, 상담을 토대로 씌어진 것들은 여성의 상담내용만을 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은 학계에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중·노년기 이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의 젊은 이혼부부만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이혼 연구서의 한계점이라 볼 수 있다. —이성수 기자

지난 4월20일자(147호) 본지에 소개됐던 '컴퓨터 통신으로 도서주문판매……' 제하의 기사에서 "아직 준비부족으로 계획을 밝힐 수 없다" 하여 "출판사도 이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예정"이라고만 소개되었던 동아출판사(사장 김현식)가 지난 5월23일부터 한국통신의 하이텔, 데이콤의 천리안 통신망을 통해 도서의 PC통신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로써 교보문고, 종로서적, 한일아이피, 북네트 등과 더불어 독자들이 안방에 앉아 편안하게 책을 사볼 수 있는 길은 더욱 다양하게 열린 셈이다. 이번 실시된 동아출판사의 PC통신판매는 한일아이피, 북네트의 경우와 비슷한 형태를 지니는데, 민음사 등 20여개 출판사와 연합, 가입출판사들의 책을 정가의 35%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받고 동아출판사가 맡아서 판매하는 것이다. 동아, 민음사 외 참여출판사는 나남, 다나, 문예, 문학사상사, 범우사, 사계절, 삼진기획, 상아, 샘터, 열림원, 우석, 자유문화사, 정신세계사, 창작과비평사, 책세상, 한림원, 행림, 흥의 등이다.

PC, 컴퓨터터미널, 케이블TV, Fax 등 정보통신기기의 폭발적 보급으로 이제 국내에서도 이들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통신판매, 즉 다이렉트 마케팅이 활성화될 것은 오래전부터 예측돼 왔다. 지난 92년부터 구미 선진국의 통신판매를 사례로 시장조사를 해온 동아출판사 유통사업부 김기현 차장은 "UR의 타결과 95년부터 시행될 출판유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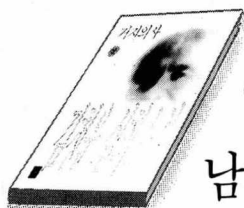
장개방으로 외국의 우수한 DM회사들이 막강한 자금력과 광범위한 유통노하우를 이용 무차별적으로 국내시장에 침투할 것에 대비, 도서유통의 다변화, 기반다지기의 일환으로 도서통신판매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힌다.

대형서점의 통신판매가 입하도서 전체가 통신판매의 대상이라는 장점과 함께 우송료의 독자부담이라든가, 각각 천리안과 하이텔이라는 한 통신망을 이용해야 되는 단점이 있는 것처럼, 동아출판사의 통신판매도 두 통신망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우송료의 독자부담이 전혀없다는 커다란 장점을 지니는 반면 앞서 언급됐듯 참여출판사(현재는 20여사,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 함)의 책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한계가 있기는 하다. 따라서 독자들은 요모조모를 살펴보고 때에 따라 합리적 선택을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다.

집에 앉아 책을 구입한다는 장점 외에도 서적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도 PC통신판매의 큰 매력인데, 먼저 접속방법은 하이텔을 예로 든다면 '홈쇼핑'란으로 들어가 '도서'를 선택한 후 '좋은 책의 발견'을 찾으면 된다. 동아출판사 PC통신판매의 이름인 '좋은 책의 발견'에 들어가면, ③도서주문 외에도 ③멀티미디어 ④참여출판사 안내 ⑤새로나온 책 ⑥화제의 책 ⑦베스트셀러 등 10여개의 다양한 서비스메뉴가 있어 책을 주문 앓고도 정보를 즐길 수 있다.

—정혜옥 기자

전화 738-0931~2
팩시 720-3469



입원비 없는 환자를 도망시킨
남대문 거지굴, 프랑스 아비뇽,
그는 왜 의사로서의 보장된 삶을 박차고

거지의사

의사. 양동 사창가,
무의촌 진료.
거지의사가 되었을까?



저자 김청운
1936년 경북 안동 출생. 내과 전문의로서 영일병원 원장.
월간 <의료계> 발행인 역임. 지금은 법무부 교화위원이며
1993년 8월부터는 노인 복지기관 안로원 <소망원> 설립 추진.

· 김청운 실화소설
상하 각권 5,500원

복잡하게 얽혀만 가는 여자 관계. 순수를 지키기 위해 저지른 남근 절단. 사랑에 눈을 뜨고 진정한 의사의 길을 걷는 과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충격적 고백!